AI·클라우드 18년 현장경험 바탕 전사 AX·정보보호 시스템 진두지휘

CEO와칭

김완종 SK AX 사장

김완종 SK AX 사장이 SK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보안 전략을 이끄는 중책을 맡아 SK AX의 최전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지난 10월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된 데 이어 연말부터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AX정보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다.



김완종 SK AX 사장이 지난 6월 열린 '이매진 AX 2026'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SK AX

◆ 18년 사내 AI·클라우드 현장 누빈 실전형 전문가

김완종 SK AX 사장은 18년 동안 AI·클라우드 현장 경험을 두루 습득한 실무형 경영자로 평가 받는다. 2008년 SK C&C 전략사업본부를 거쳐 2016년 A&I팀장을 맡고 2017년 디지털전환(DT)추진본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부문장으로 활약하며 SK그룹 내 IT 인프라와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이끌었다. 이후 2023년 최고고객책임자(CCO)에서 지난해 10월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그 동안 사내에서 실무진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주목 받았다. 클라우드부문장을 맡던 2021년 당시 김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문과 출신임에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초 자격증을 취득했다. 같은 시기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인증 캠페인과 대대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도 이같은 활동의 배경이 됐다.

◆ SK AX 고강도 쇄신 주역…"새 항로 개척 못하면 '서든 데스' 맞을 것" 각오

김완종 사장은 지난 10월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되며 내년에도 SK AX를 이끌게 됐다. 지난해 SK C&C에서 SK AX로 사명 변경 이후 사실상 처음 치뤄진 인사 평가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그는 취임 이후 기존 조직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AI 중심의 사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최고AI혁신책임자(CAIO)를 신설한 점이다.

CAIO 신설 등 조직 체계 '손질'
CIO·R&D AI 서비스 조직 통합
신뢰회복 중심 경영… '보안' 최우선
AX정보혁신위원장으로 영역 확대

특히 SK AX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CAIO에 기존 IT 인프라 운영을 수행하던 CIO 조직과 연구개발(R&D) 영역의 AI 서비스 조직을 통합했다. 김 사장은 이를 부문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사 AI 전략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보안 거버넌스를 AX의 뼈대로 삼는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로 그룹사의 신뢰 회복 중심의 경영 기조가 배경이다. SK그룹은 당시 최태원 SK 회장 주도 아래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정도로 보안을 그룹 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안전·보건·환경(SHE), 사이버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화두로 내세워 각 구성원들에게 보안 의식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사이버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흔들리면 AI 혁신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AI로 새 항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서든 데스(돌연사)를 맞이할 수 있다"며 AX를 기업의 생존 문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 SK그룹 AX·보안 전략 사령탑…해킹 난제 해결할까

김 사장은 올해 연말부터 SK수펙스추구위원회 산하의 AX정보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전신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가 보안에 집중했다면, 새 위원회는 AX까지 영역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그룹의 'AI 컴퍼니' 전략의 양대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AX정보혁신위원회를 통해 전 계열사의 인공지능 전환과 그룹 전반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직접 실행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거시적인 AI 전략과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AI 위원회'의 수장은 유영상 전 SK텔레콤 사장이다.

다만,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난제가 김 사장 앞에 놓여 있다. 특히 SK AX는 데이터 유출이 민감한 금융 산업에도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가 시급하다. 최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내부 통제가 엄격한 금융권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해킹하는 사례가 나타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I 도입과 함께 해킹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실전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김 사장의 취임 이후 성적표는 조만간 SK주식회사 3분기 실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수익성 개선과 함께 선방했다는 평가다. SK AX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조 2717억, 영업이익 9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1%, 17.4% 증가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AI 토큰 최적화로 B2B 시장 공략

반복 작업 따른 전체 운영 비용 절감
모델 경량화·답변 생성 속도 강화

LG유플러스가 내년부터 AI 토큰 최적화 기술을 앞세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AI 모델 선택부터 업무 수행까지 전 과정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춰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사의 AI 인프라와 토큰 최적화 기술의 수익화가 목표다. AI 모델 단가보다 반복 작업에 따른 전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를 경제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는 "모델 단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AI 에이전트가 확산할수록 불필요한 검색과 분석을 반복하면 전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토큰 효율화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입증했다. 자체 기술검증 결과, 토큰 소모가 가장 심한 코딩 영역에서 자체 AI 모델의 운영 비용을 약 90% 절감됐다. AI 모델을 결정하는 모델 라우팅을 통해 일반적인 질문 처리 비용을 25% 이상, 코딩 에이전트의 경우 30% 이상 낮췄다.

또한 AI 모델 크기를 경량화하고 답변의 생성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자체 온디바이스 AI 모델 크기를 기존 2.4~3GB에서 800MB까지 줄였다. 이는 약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소형언어모델이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고 대형언어모델이 이를 검증하는 기술까지 고도화했다. 이는 토큰 생성 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 성과는 글로벌 AI 학술대회 '뉴립스' 등재 논문으로 채택됐다.

비용 효율화를 위해 고가의 AI 칩에 종속되지 않는 '칩 믹스' 전략도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2년 넘게 협력 중으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검증 중이다.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작업과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한 작업을 나눠 각 반도체에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활용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사업에 대규모 트래픽 운영 노하우를 집약할 계획이다.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출시 초기에는 LG AI연구원의 온디바이스 모델과 구글 제미나이를 병행해 활용하다가 현재는 자체 AI 모델과 엑사원 등의 비중을 정교하게 조합해 비용 효율을 끌어올렸다. 또한 사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AI 코딩 도구에도 자체 모델을 활용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공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연말 카카오와 전 국민 AI 활용을 협력하는 '모두의 AI' 사업에서도 이같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신작 전시 넘어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로

오는 19일 '지스타 2026' 개막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 마련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사진)이 글로벌 게임사 참여 확대와 인공지능(AI), 인디게임, 투자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앞세워 종합 게임산업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신작 공개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발사와 투자자, 콘텐츠 창작자까지 연결하는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 2026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크래프톤과 웹젠을 비롯해 코에이 테크모, 세가, 넷이즈게임즈, CD 프로젝트 레드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참가한다. 특히 AI 기업 뤼튼의 캐릭터·스토리 플랫폼 '크랙'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게임과 AI 콘텐츠의 융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지스타의 가장 큰 변화는 제2전시장에 처음 마련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다. 해외 주요 게임사가 신작과 대표 지식재산권(IP)을 선보이며 글로벌 콘텐츠 전시 기능을 강화한다.

코에이 테크모는 '인왕 3'와 '와룡 2: 윙스 오브 엠버'를 출품하고, 세가는 '토탈워: 워해머 40,000'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넷이즈게임즈는 '원스 휴먼'과 '연운'을, CD 프로젝트 레드는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와 '사이버펑크 2077'을 선보인다.

국내 게임사들도 신작 경쟁에 나선다. 10년 연속 참가하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신작 4종을 공개한다. 동양 다크 판타지 액션 RPG '타래: 언바운드'의 신규 클래스 '투귀'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며, '에이지 트위스터', '왈츠앤 잼', '템빨용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한다.

웹젠은 1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웹툰 원작의 전략 RPG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LAST STAGE'를 일반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한다. 신작 MMORPG '뮤 테오스'의 세계관을 담은 티저 영상도 선보인다. 이 밖에 '테르비스', 'R2 ORIGIN', '메틴2', '샷온라인' 등 기존 IP 기반 작품도 출품한다.

인디게임 전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는 250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국내외 100여개 개발사가 참여한다. 글로벌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과 유니티 등이 함께하며 AI 게임잼과 해외 개발사 작품 전시도 진행된다.

비즈니스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된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BTB관 네트워크 라운지를 확대하고 '지스타 인베스트먼트 커넥트'를 신설해 국내외 투자사와 퍼블리셔, 중소·인디 개발사 간 협력을 지원한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파이널 등 e스포츠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인천 남동산단에 '세이프메이트' 설치

〈AI 기반 화재안전 서비스〉

LDT와 협력… 20곳에 105대 구축
불꽃, 연기, 온도변화 등 감지하고
화재 가능성 판단해 KT 관제센터 전달

KT는 AI 기반 화재안전 서비스 '세이프메이트'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이프메이트는 화재 발생 시 불꽃과 연기, 온도 변화 등 다양한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KT 관제서비스와 연계해 상황 확인부터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하는 '2026년 남동산단 A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20개사에 세이프메이트 화재감지기 105대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화재감지 기술 전문기업 LDT와 협력했다. KT는 세이프메이트 상품과 통신·관제·플랫폼을 총괄하고, LDT는 화재감지 단말의 연구·고도화와 현장 시스템을 담당한다. 양사는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에서 세이프메이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현장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화재감지 단말은 불꽃과 연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상승 등 여러 화재 징후를 복합적으로 감지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수만 건의 감지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이상신호의 패턴을 분석해 실제 화재 가능성을 판단하고 KT 관제센터에 전달한다.

KT 관제센터는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해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하는 등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 등 상주 인력이 적은 시간에도 화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는 세이프메이트에 AI 기반 아크감지 기능을 추가해 화재 징후 감지와 대응을 넘어 예방 영역까지 안전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크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기적 이상현상으로, AI가 비정상적인 아크 신호를 감지·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산업현장의 전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조민선 기자